

매력적인 디자인의 귀환: 제니스, 1969 년 최초의 데피 모델을 다시금 재해석하다

1960 년대 및 1970 년대에 호평을 받으며 큰 인기를 누렸던 역사적인 엘 프리메로 모델을 재해석하는 제니스 매뉴팩처가 이번에는 1969 년에 공개된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작품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데피 모델을 모던한 스타일로 재해석한 데피 리바이벌 A3642 가 특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1969 년은 제니스, 그리고 워치메이킹 세계 전체를 통틀어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엘 프리메로 칼리버가 처음으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제니스 매뉴팩처 전체를 뒤흔들었던 데피 컬렉션이 첫선을 보인 해이기도 합니다. 쿼츠 시계라는 새로운 흐름이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명맥을 위협하던 시기, 당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전자시계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제니스는 독특하고 세련미 넘치는 디자인과 견고한 매력이 어우러지는 타임피스를 선보이며 기계식 무브먼트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토록 대담한 정신을 담아낸 데피 A3642 는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제니스 매뉴팩처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새로운 장을 열어 준 모델입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A3642 에는 프랑스어로 “은행 금고” 또는 “안전 금고”를 의미하는 *coffre-fort* 라는 애칭이 붙여졌습니다. 대담한 팔각형 케이스에 14 개의 면을 갖춘 베젤은 예리하고 선명한 라인과 다양한 마감 기법이 돋보이는 각면을 통해 대담하면서도 견고한 매력을 드러내며, 이는 현재의 제니스 데피 컬렉션까지 온전히 이어졌습니다. 명성 높은 게 프레르(Gay Frères) 회사에서 디자인 및 제작을 맡았던 스틸 “래더” 브레이슬릿이 탑재된 오리지널 데피는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스포티한 스틸 브레이슬릿 위치를 능가하는 매력을 자랑했습니다. 오리지널 데피 A3642 와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리바이벌 버전 또한 스크류-다운 크라운을 통해 30ATM(300m) 방수 기능을 갖추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1969 년 최초의 생산 계획에 따라 작은 디테일까지도 정교하게 재현해낸 **데피 리바이벌 A3642** 는 당시 오리지널 타임피스에 탁월한 매력을 더해 준 독특한 디테일과 디자인 요소, 그리고 현재의 데피 레퍼런스에도 끊임없는 영감을 선사하는 디자인 코드의 구현 방식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따뜻한 그레이 컬러의 다이얼이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놀라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자아냈던 디자인은 1969 년 출시 당시에는 그 어느 타임피스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디테일입니다. 여기에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는 스퀘어 형태의 아워 마커에는 가로로 홈이 나 있어 끊임없이 움직이는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검형(sword-shaped)으로 완성된 넓은 핸드에는 슈퍼 루미노바를 넉넉히 채워 오리지널 모델에서 발견된 트리톱과 유사한 디자인을 완성하였으며, 여기에 당시 수많은 제니스 시계에서 독보적인 특징으로 손꼽혔던 패들 형태의 세컨즈 핸드를 매치했습니다. 실제로 오리지널 모델과 리바이벌 모델의 외관상 차이점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케이스백, 야광 피그먼트 유형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시계 내부에 존재합니다. 오리지널에 탑재된 솔리드 케이스백, 그리고 브랜드의 로고로 자리잡으며 향후 수 년간 반복적인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었던 4 개의 포인트가 돋보이는 스타장식 대신 **데피 리바이벌 A3642** 에는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4Hz(28,800VpH)로 박동하며 완전히 와인딩했을 때 50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엘리트 670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니스는 **데피 리바이벌 A3642** 를 통해 1960 년대에 가장 대담하고 독보적이었던 레퍼런스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뛰어넘어, 매뉴팩처의 기원으로 돌아가 가장 대담하고 혁신적인 컬렉션이 탄생하는 순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더욱 유려하고 현대적인 구조로 오리지널 데피 모델을 재해석하고 현대적인 리바이벌 버전을 통해 더욱 차원 높은 성능을 선보일 제니스의 다음 타임피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 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과거와 현재의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제니스 시계에는 모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니스는 1969 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크로노마스터 라인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데피 컬렉션을 통해 더욱 정밀한 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니스는 1865 년부터 지금까지 대담한 도전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데피 리바이벌 A3642

레퍼런스: 03.A3642.670/75.M3642

핵심 사항: 1969 레퍼런스 A3642의 오리지널 버전 리바이벌. 팔각형 케이스와 14개의 면을 갖춘 아이코닉한 베젤 25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무브먼트: 엘리트 670 오토매틱

진동 수: 시간당 28,800회(4Hz)

파워 리저브: 최소 5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센트럴 세컨즈 핸드. 4시 30분 방향의 날짜 표시창

마감: 새틴 마감 처리된 새로운 별 모양 로터

가격: 6,900 스위스 프랑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30ATM

케이스: 37mm

다이얼: 그라데이션 브라운

아워 마커: 로듐 도금 및 각면 처리

핸즈: 로듐 도금 및 각면 처리,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스테인리스 스틸 "래더" 브레이슬릿.

